

2008. 3. 3 제186호

# 세계도시동향

# 세계도시

2008. 3. 3 제186호

## 목 차

### [벤치마킹 사례]

런던시의 '읽기 쉬운 런던'(Legible London) 프로젝트

### 문화·디자인

1. 클릭! 200개 박물관이 열린다 (베를린)
2. 이벤트 전용 공간 만들면 도시 가치 쑥! (브라질 상파울루시)
3. '대중교통 웹진' 타고 주말 공연장으로 (런던)
4. 거리 광고판이 바뀌면 도시가 아름다워진다 (브라질 쿠리치바시)

### 산업·경제

5. 학문과 기술 교류가 도시 혁신으로 (베를린)
6. 관광산업은 경제도 춤추게 한다 (브라질 상파울루시)

### 건강·복지

7. 육아휴직하면 구립 보육시설 예약하세요 (도쿄도 시나가와區)
8. 이주 청소년 폭력 증가, 부모 양육능력 향상으로 막는다 (베를린)
9. 어린이 비만, 도시계획가가 나서야 (런던)

## 목 차

### 행정·재정

10. 아이들 웃음소리로 쌓는 '인구 피라미드' (일본 아야베市)

### 방재·안전

11. 감옥 대신 사회봉사가 재범률 낮춰 (영국)

### 도시환경

12. 유럽 '환경구역'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베를린)
13. 매염 뿜는 대형차량, 저배출 지역 앞에서는 '브레이크!' (런던)
14. 집집마다 온실가스 저감비법 전수 (일본 고베市)
15. 골칫거리 덩불 제거, 소에게 맡겨 (런던)

### 도시교통

16. 모두 함께 "주변 승객을 배려하자" (런던)

### 도시계획·주택

17. 구직 노력 없으면 영구 임대주택도 없다 (영국)
18. '움직이는 도시'로 건강을 지켜라 (영국)
19. 나무 향기 주택, 100년 건강 주택... '골라 골라' (도쿄)

## [벤치마킹 사례]

### 런던市の ‘읽기 쉬운 런던’(Legible London) 프로젝트

#### <주요 내용>

- 런던시는 정확하고 다양한 보행정보 제공을 통해 관광객이나 시민이 걸으면서 도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런던교통부(Transport for London)와 런던개발국(London Development Agency), 웨스트민스터區 등과 함께 ‘읽기 쉬운 런던’(Legible London) 프로젝트를 시행함.
  - 런던시장은 최근 2015년까지 런던시를 세계적인 수준의 ‘보행 도시’(Walking City)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런던시장의 비전 달성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2012년 런던 올림픽대회 기간에 런던을 찾을 많은 관광객에게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관광객이나 런던시민이 지하철 노선도인 ‘Tube Map’에만 의존해 보행정보를 얻고 있는 점에 주목한 시는, 보행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시는 프로젝트 시행에 앞서 ‘보행로 탐색 연구’(A Wayfinding Study)를 수행함.
    - 보행자가 보행로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보행을 장려하기 위해 표지판 등을 어떻게 이용할지 등을 연구함.
    - 보행로를 찾을 때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 노선도에 표시된 보행정보가 상당 부분 틀린 것을 밝혀냄.
    - 정확한 보행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행을 장려하면 대중교통 기반 시설 개선 요구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함.

- 보행자가 늘어나면 그 지역 상가나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가 증가하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활기찬 거리가 조성되는 긍정적인 연구결과도 나타났음.
- 유명 관광지나 시설물까지의 보행거리와 방향 등 보행정보를 표지판에 자세히 기록하고, 이 표지판을 지하철역 입구나 버스정류장에 설치할 예정임.
- 관광객 등 보행자가 많은 옥스퍼드 거리(Oxford Street)와 리젠트 거리(Regent Street), 본드 거리(Bond Street)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한 후 프로젝트 시행 범위를 확대할 계획임.



보행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단말기



보행정보가 자세히 적힌 표지판

## <해설 및 평가>

- 런던市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볼거리가 많아 1년 내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도시임.
  - 관광객은 교통수단을 이용하기보다 걸어서 도시를 즐기는 경우가 많음.
  - 정확한 보행정보 제공은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빠질 수 없는 요소임.
- 보행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노선, 소요시간, 승하차 장소 등은 중요한 요소임.
  - 이러한 정보는 보행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보다 더 중요할 수 있음.

##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 서울시도 관광객과 시민이 주로 지하철 노선도를 이용해 보행정보를 얻고 있지만 잘못된 정보가 많음.
  - 보행정보가 자세히 수록된 보행지도는 거의 없는 실정임.
- 서울시는 현재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거듭나는 과정에 있음.
  - 대중교통은 보행으로 시작해 보행으로 끝나게 됨. 하지만 대중교통 정보를 제공할 때 보행자를 위한 정보는 매우 적음.



보행정보가 미흡한 지하철 역 출구 안내도

## <벤치마킹 시행방안>

- 서울을 쉽게 소개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수록한 보행지도를 제작해야 함.
  - 서울은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도시로 많은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계천과 한강을 비롯해 볼거리가 많음.
  - 서울시는 현재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힘쓰고 있음. 보행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A Wayfinding Study’ 연구결과를 볼 때, 관광산업 촉진으로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적극 검토해야 함.
- 도심을 중심으로 보행정보 제공방법, 탐색한 보행로에 대한 평가 등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함.
  - 시범사업 후 서울시의 주요 관광지나 보행자가 많은 지역으로 정책을 확대할 수 있음.

## <벤치마킹 기대효과>

- 정확한 보행지도를 제작해 배포하면 서울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
  - 걸으면서 서울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관광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임.
- 보행정보 제공은 관광객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울 시민에게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
  -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가 보행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신해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newsun@sdi.re.kr)

### 1. 클릭! 200개 박물관이 열린다 (베를린)

○ 베를린市 경제·기술·여성부는 2008년 1월 市 소재 박물관 200여 개를 모아 ‘박물관 포털사이트’를 개설함.

- 그동안 각 박물관 웹사이트에 일일이 접속해야 했던 불편함을 없앴.
  - 편의시설이나 행사 등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음.
  - 입장권 구매나 예약도 가능함.
- 경제·기술·여성부 장관은 “문화적·경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 박물관 포털사이트를 구축했다. 전 세계 문화부문 관계자와 관광객, 투자자가 베를린市를 주목하는 데 박물관 포털사이트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함.
  - 문화도시 베를린은 이미 오래전부터 관광부에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며, 박물관 포털사이트는 좀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www.museumportal-berlin.de](http://www.museumportal-berlin.de))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01/23/92601/index.html](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01/23/92601/index.html))

#### >>> 전문가 검토의견

- 서울시 홈페이지는 서울시의 문화행사, 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 문화공간,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서울시 문화국 홈페이지([www.visitseoul.net](http://www.visitseoul.net))에서는 문화시설 이용방법, 주변 지도, 교통정보 등을 제공하며, 맛집·쇼핑·숙박·관광지 등 주변 편의시설을 안내함.
  - 공연이나 전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예약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yeyak.seoul.go.kr](http://yeyak.seoul.go.kr))도 운영 중임.
  - 문화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행사 안내와 주요 시설물 예약 서비스는 서울시 모바일 포털 ‘m서울702’에서 제공함.

- 서울시 문화국 홈페이지가 서울시의 문화·관광 포털사이트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문화·관광 정보가 여러 실·국 홈페이지에 분산돼 있어 시민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짐.
- 각 정보는 실·국별로 관리하더라도 시민은 문화·관광 포털사이트에서 원스톱 검색을 할 수 있어야 함.

/장무경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mkjang@sdi.re.kr)

## 2. 이벤트 전용 공간 만들면 도시 가치 쑥! (브라질 상파울루市)

- 브라질 상파울루市는 민간기업과 협력해 490만㎡ 규모의 이벤트 전용 공간인 ‘뉴 아넴비 공원’을 조성할 계획임.
- 뉴 아넴비 공원에는 다목적 체육관과 다용도 센터가 들어서며, 각종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임.
  - 현재 상파울루市에서 박람회가 가장 많이 열리는 아넴비 공원은 40만㎡인데 6만 7000㎡가 박람회 전용 공간임. 새로 조성할 뉴 아넴비 공원에 확보된 박람회장 규모는 지금의 20만㎡로, 3배 넓어짐.
  - 뉴 아넴비 공원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대회에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됨.
- 박람회 개최는 상파울루市의 주요사업 중 하나로, 브라질 전체 박람회의 75%와 연간 9만 건의 행사가 상파울루市에서 열림.
  - 박람회를 통해 연간 26억 헤알(약 1조 3000억 원)이 유통되고 있음.
  - 박람회 관련 서비스 산업에서 걷어 들이는 세금만도 연간 1억 1400만 헤알(약 570억 원)에 달함.
- 이벤트 전문 공간이 조성되면 도시 가치가 상승해 市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www.estadao.com.br/cidades/not\_cid115448,0.htm)

### 3. '대중교통 웹진' 타고 주말 공연장으로 (런던)

○ 런던교통공사는 대중교통과 문화를 연계한 웹진 '런던 루프'(London Loop)를 시민의 생활방식에 맞춰 주말판으로 발간함.

- 주말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게 매주 목요일 오후 구독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함.
- 런던市 토박이만이 알고 있는 여행정보,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 재미있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소개해 관광객이나 시민이 주말을 즐겁게 보낼 수 있게 기획함.
- 공연·문화 소식, 공연장으로의 이동방법, 대중교통 수단별 공사(工事) 알림 등 문화시설 이용정보를 제공함.
- 주요 식당이나 공연장, 전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할인 쿠폰도 제공함.



런던 루프(London Loop) 웹사이트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7270.aspx](http://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7270.aspx))

([tfl.gov.uk/londonloop](http://tfl.gov.uk/londonloop))

#### 4. 거리 광고판이 바뀌면 도시가 아름다워진다 (브라질 쿠리치바市)

○ 브라질 쿠리치바市는 역사·관광 명소와 주요 진입로 등의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옥외 광고판이나 광고 조명 설치 등 광고물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함.

- 광고판을 표준화하고, 광고판의 모양·자재·설치 방법 등의 새 기준을 마련함.

·市는 새 정책이 도시 경관을 좋게 하면서 광고효과도 높일 수 있게 2005년부터 이 분야 전문가 및 기업과 논의를 계속해 왔음.

- 거리 광고판의 40% 이상을 줄이는 것이 목적임.

·市는 2005년부터 매주 2톤 이상의 불법 현수막을 압수하고 있음. 2007년에만 1만 6221개의 불법 광고물을 압수함.

([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12340](http://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12340))

#### 한줄 뉴스

- 영국 리버풀市, '문화창조 도시' 이미지 창출 위해 비즈니스 투자 유치방안 모색 등 내부 개혁 추진

-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市, 노숙자 보호시설을 친환경 시설로 개선

- 베를린市, 2008년 2월 1~10일 40개 광장에 '무지개 가족'(동성애 가족을 상징) 플래카드 걸고 캠페인 벌여

### 5. 학문과 기술 교류가 도시 혁신으로 (베를린)

- 베를린市 경제·기술·여성부는 2007년부터 ‘학문과 기술 교류 프로젝트’(WTT: Wissens und Technologietransfer)를 추진하고 있음.
  - 시작 첫해에 학계 전문가와 중소기업을 위한 교류 프로젝트 12개가 발주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100개 이상의 기업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계획을 새로 세웠으며, 향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학계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남.
  - 이 프로젝트에는 공업 및 서비스업의 중소기업도 포함됨.
    - 이들은 베를린 3개 종합대학과 2개의 기술전문대학, 50개 이상의 외부기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상품 개발과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경제·기술·여성부 장관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베를린市는 혁신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원활하게 대처하지 못한 기업을 돕고 있다.”고 말함.
  - 베를린 투자은행과 유럽지역 개발펀드가 2013년까지 자금을 지원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02/01/93134/index.html](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02/01/93134/index.html))

### 6. 관광산업은 경제도 춤추게 한다 (브라질 상파울루市)

- 브라질 상파울루市는 관광산업을 통해 고용 창출이나 소득 분배 등 53개 경제분야가 활성화한다고 밝히고, 관광산업 성장에 주목함.
  - 2008년 1월 상파울루市 호텔의 숙박률은 67%에 달했는데, 이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0~35%였던 것과 비교할 때 경이적인 성장률임.

- 상파울루市는 2006년과 2007년 관광산업 성장으로 세수입이 10.4%나 증가함.
- 관광산업 성장에 관한 통계는 숙박업, 관광 패키지 상품, 이벤트 분야를 토대로 산출한 것임.
- 교통, 요식업, 쇼핑 등 여러 분야에 미친 영향을 모두 합하면, 2007년 한 해 관광산업으로 유통된 돈이 70억 헤알(약 3조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www.prefeitura.sp.gov.br/portal/a\\_cidade/noticias/index.php?p=21233](http://www.prefeitura.sp.gov.br/portal/a_cidade/noticias/index.php?p=21233))

## 건강 · 복지

### 7. 육아휴직하면 구립 보육시설 예약하세요 (도쿄都 시나가와區)

- 도쿄都 시나가와區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구립 보육시설 예약 입학제를 실시하기로 함. 이는 새로운 육아 지원책으로 주목 받고 있음.
- 구립 보육시설은 맞벌이 부모의 자녀 중 0세부터 취학 전 아동을 돌봐주는 공립시설임.
- 구립 보육시설 예약 입학제는 육아휴직 중인 부모에 한해 2008년 6월부터 예약 접수를 실시함.
  - 매년 4월 입학시기에 연간 입학 아동 수가 모두 채워짐. 특히 도시에서는 대기하는 아동 수가 많아 연중 입학은 어려움.
  - 육아휴직 중인 부모가 4월 입학 시기를 맞추기 위해 육아휴직을 연장하거나 육아휴직 도중 직장에 복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음.
  - 대상 유아는 1~3세며, 구내 전체 40개 보육시설 정원 3600명 중 130명을 예약 접수할 수 있도록 함.
  - 예약은 출산 전부터 가능하며, 육아휴직 기간을 고려해 입학 시기를 결정하므로 복직 시기도 계획할 수 있음.

- 2007년 12월 ‘아이와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 중점전략 검토회의’에서 탄력적인 육아 지원책이 논의된 바 있어, 이에 부응하는 시책으로 기대됨.

(www.yomiuri.co.jp/national/news/20080205-OYT1T00361.htm)

### >>> 전문가 검토의견

- 시나가와區의 구립 보육시설 예약 입학제는 부모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보육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할 뿐 아니라 ‘출산 친화적’ 혹은 ‘양육 친화적’인 지역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육아휴직 기간을 전후해 맞벌이 부모가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 민간 보육시설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보육현장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질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받고 있음.
  - 국·공립 보육시설 정원의 일정분에 대해 예약 입학제를 실시하면 적극적인 육아지원 전략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예약 인원에 대해서는 시간제 보육으로 운영하는 등 시설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할 수 있을 것임.
- 보육정보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영유아플라자 등 지역 내 보육 관련 기관과 연계함으로써 포괄적인 육아지원 체계를 만들 수 있음.

/김선자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sunjakm@sdi.re.kr)

#### 한줄 뉴스

##### <파리>

- ‘환경의 질 향상’ 기준을 세우고 모든 공영 주택 신·개축 공사에 적용하도록 권고
- 전기와 디젤 연료를 이용한 하이브리드(Hybrid) 기차 운행

## 8. 이주 청소년 폭력 증가, 부모 양육능력 향상으로 막는다 (베를린)

- 베를린市 폭력예방위원회는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의 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주 배경을 가진 부모의 양육능력 제고 프로젝트와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의 갈등 해소능력 배양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기로 함.
  - 폭력예방위원회는 이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2008년과 2009년 약 60만 유로(약 8억 4000만 원)를 지원할 계획임.
  - 폭력예방위원회는 최근 ‘2007년 이주 배경을 가진 베를린市 청소년의 폭력 보고서’도 발간함.
    - 각 행정부, 경찰청, 통합이주부, 구청 등의 담당자와 전문가가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의 폭력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를 분석하고 폭력 근절을 위한 광범위한 조언을 담음.

([www.berlin-gegen-gewalt.de](http://www.berlin-gegen-gewalt.de))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02/01/93144/index.html](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02/01/93144/index.html))

## 9. 어린이 비만, 도시계획가가 나서야 (런던)

- 런던市는 어린이 비만을 막기 위해 국가 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체육협회(Sport England), 런던교통국, 런던 2012 올림픽 준비단, 런던푸드협회(London Food Board)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를 설립함.
  - 이 단체는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여러 기관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됨.
  - 특히 도시의 거리를 조성하고 건물을 지을 때 사람이 많이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도시계획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함.

([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781373/](http://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781373/))

([London-planners-tackle-obesity-crisis](http://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781373/London-planners-tackle-obesity-crisis))

## 행정 · 재정

### 10. 아이들 웃음소리로 쌓는 ‘인구 피라미드’ (일본 아야베市)

- 일본 아야베市는 낮은 출산율로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음. 이에 인구분포도를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 피라미드형으로 재생하기 위해 ‘인구 피라미드 재생 사업’을 기획함.
  - 마을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 차고 고령자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활기찬 마을로 재생하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사업임.
  - 지역 자치활동을 통해 주민이 역사와 문화를 돌아볼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함.
    - 모든 행사에 아이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아이의 웃음소리에서 얻어지는 활기찬 마을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다는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얻음.
    - 지역 활성화에 관한 강연을 마련해 지역 재생을 위한 새로운 전략에 관한 주민의견도 수렴함.

([www.pref.kyoto.jp/chiikiriyoku/resources/1200373593914.pdf](http://www.pref.kyoto.jp/chiikiriyoku/resources/1200373593914.pdf))

## 방재 · 안전

### 11. 감옥 대신 사회봉사가 재범률 낮춰 (영국)

- 영국 국가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은 범죄자를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 사회봉사 활동(Community Service)을 하도록 하는 것이 범죄 재발을 막고 범죄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함.
  -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기간에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직장도 다닐 수 있게 함.

- 실제 사회봉사를 한 범법자의 재범률이 3.5% 낮게 나왔음.
- 현재 포화상태에 있는 교도소의 공간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국가 감사원 관계자는, 사회봉사가 재범률을 낮출 수 있지만 범법자의 사회봉사 수행을 관리하는 데 있어 아직 개선할 점이 많다고 말함.

([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780779/Watchdog-Community-sentences-cut-reconviction](http://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780779/Watchdog-Community-sentences-cut-reconviction))

## 도 시 환 경

### 12. 유럽 ‘환경구역’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베를린)

- 베를린市는 런던市, 암스테르담市, 로테르담市 등 환경구역을 계획하거나 지정 한 유럽의 여러 파트너 도시와 협력해 ‘환경구역 포털사이트’를 구축함.

- 유럽 8개국 70개 도시에서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환경구역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음.

- 베를린市 건강·환경·소비자보호부 장관은 “환경구역 포털사이트가 유럽 도시 간 환경구역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가 포털사이트를 통해 환경구역 정보를 미리 알아 유럽 어느 환경구역에서도 문제없이 주행하도록 하고 싶다.”고 사이트 구축 취지를 밝힘.

- 환경구역 포털사이트에서는 유럽에서 지정된 환경구역이 어디인지, 환경구역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은 무엇인지, 환경구역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지, 독일에서 ‘배출표시 스티커’는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지 등을 검색할 수 있음.

([www.lowemissionzones.eu](http://www.lowemissionzones.eu))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01/23/92599/index.html](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01/23/92599/index.html))

### 13. 매염 뿜는 대형차량, 저배출 지역 앞에서는 ‘브레이크!’ (런던)

- 런던 교통공사는 2008년 2월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 市 주변에 지정된 저배출 지역(Low Emission Zone)으로 진입하는 대형차량 단속을 시작함.
  - 총 4900만 파운드(약 909억 1600만 원) 예산을 투입해, 단속카메라 75대를 새로 설치하고 이동 단속차량 10대를 운행함.
  - 런던市는 현재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이 전체 대기오염 발생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저배출 지역 지정이 필수라고 밝힘.
    - 런던市는 유럽 도시 중 대기질 수준이 가장 낮다는 평가를 받았음. 매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00여 명에 이르는 등 대기질 악화가 점점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저배출 지역으로 지정된 범위는 런던광역권(Greater London) 면적의 대부분인 1580km<sup>2</sup>로, 도심 일부 구간에서 지정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과 별도로 운영함.
    - 혼잡 통행료는 평일 저녁과 휴일에는 부과하지 않지만, 저배출 지역은 24시간 365일 단속함.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7261.aspx](http://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7261.aspx))

([news.bbc.co.uk/1/hi/england/london/7225527.stm](http://news.bbc.co.uk/1/hi/england/london/7225527.stm))

### 14. 집집마다 온실가스 저감비법 전수 (일본 고베市)

- 일본 고베市는 목표와는 달리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가정용 온실가스 저감 매뉴얼을 만들어 65만 가구에 배포하기로 함.
  - 가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전체 배출량의 17%를 차지하고 있어, 구체적인 저감 목표량을 정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할 계획임.

- 단독 주택 3인 가족의 연간 전력 소비량은 5900kW 미만, 가스 사용량은 430m<sup>3</sup> 미만 등 구체적인 목표치가 설정됨.
-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으로 구분해 가족 인원수에 따른 세대별 전력 및 가스 사용량의 사용 한도를 명기함.
- 계절에 따라 냉·난방으로 인해 사용량이 변하는 것을 고려해 월간 목표도 제시함.
- 3인 가족 기준으로 전기 카펫의 온도설정을 강에서 약으로 조절하면 연간 180kW의 전력을 절약할 수 있고, 매회 샤워시간을 3분 짧게 하면 연간 가스 사용량을 38m<sup>3</sup> 줄일 수 있는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작성함.

- 市 환경과는 환경보존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뉴얼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매뉴얼 제작비를 2008년 예산에 계상함.

([www.yomiuri.co.jp/e-japan/hyogo/news/20080205-OYT8T00016.htm](http://www.yomiuri.co.jp/e-japan/hyogo/news/20080205-OYT8T00016.htm))

## 15. 골칫거리 덩불 제거, 소에게 맡겨 (런던)

○ 런던시는, 사슴이 뛰어노는 광활한 도심공원으로 유명한 리치몬드 공원에 소 2마리를 들여와 덩불을 제거하기로 함.

- 왕립공원관리소, 자연보호관리청(Natural England), 인근 자치구의 도심농장 관계자가 생태학자의 조언을 검토한 결과, 꽃 번식을 위한 덩불 제거에는 거친 풀을 즐겨먹는 소가 사슴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함.

· 공원 내 4000m<sup>2</sup> 범위에 울타리를 치고 얼룩소 암컷 1마리와 새끼 1마리를 방목했음.

- 市는, 덩불이 꾸준히 제거되면 리치몬드 공원에 초롱꽃(Harebell)이 번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www.thisislondon.co.uk/standard/article-23435221-details/Grazing+cattle+re-introduced+to+Richmond+Park/article.do](http://www.thisislondon.co.uk/standard/article-23435221-details/Grazing+cattle+re-introduced+to+Richmond+Park/article.do))

## 도시 교통

### 16. 모두 함께 “주변 승객을 배려하자” (런던)

○ 런던市는 2008년 2월부터 주변 승객을 배려하는 대중교통문화 캠페인 ‘런던을 위해 함께 바꾸자’(Together for London)를 벌임.

- 런던 교통공사 홈페이지에 캠페인을 위한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버스과 지하철역 등에 포스터를 붙이는 등 대대적으로 홍보함.

·포스터에는 ‘한명 한명의 작은 배려가 우리 모두를 위한 큰 변화를 만든다’라는 표어를 내걸.

·‘나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음악을 크게 틀지 않습니다’, ‘나는 자리를 양보합니다’, ‘나는 큰 소리로 휴대전화 통화를 하지 않습니다’ 등 교통수단 이용 예절 캐릭터도 선보임.

·아카데미상 후보에 지명된 바 있는 유명감독 마이크 피기스가 제작한 홍보용 단편영화도 런던市 전역 799개 영화관에서 상영할 예정임.



“나는 음악을 크게 틀지 않습니다” 캐릭터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5454](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5454))

([www.tfl.gov.uk/togetherforlondon](http://www.tfl.gov.uk/togetherforlondon))

#### 한줄 뉴스

<런던>

- 찰스 황태자, 런던市의 스카이라인을 보호하기 위해 고층빌딩 건축 반대 입장 표명
- 모든 개발 과정에서 10% 에너지를 자치구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머튼(Merton) 법령 추진 중

### 17. 구직 노력 없으면 영구 임대주택도 없다 (영국)

- 영국 정부는 최근 영구 임대주택(Social Housing)에 계속 거주하려면 임차인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발표함.
  - 영국 전역의 임대주택 거주자 절반 이상이 실업자며, 이들의 75%가 25세 미만이라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도 개혁을 추진하게 됨.
  - 영구 임대주택 개혁안을 보면, 임차인이 구직을 위해 기술교육을 이수하는 등 구직 노력 약속이 중요함.
    -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구직 노력을 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함.
    - 실업자가 구직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임대주택에 살 수 없게 됨.
    - 임차인의 구직 노력과 직장 생활은 임대주택의 이미지 쇄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나면 30년 동안 관리하지 않던 기존 방식에 큰 변화를 줄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말함.

(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781360/  
Flint-Council-tenants-work-lose-home)

### 18. ‘움직이는 도시’로 건강을 지켜라 (영국)

- 영국 ‘국가 건강클리닉협회’(NIC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는, 새로운 도시계획이 추진되면 물리적인 활동을 장려하도록 도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권고함.

- 지역 편의시설에 보행이나 자전거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어린이를 위한 야외공간을 많이 조성해야 함.
  - 특정지역은 자동차 출입을 통제함.
  -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객을 우선 배려해야 함.
- 국가 건강클리닉협회에 따르면, 남자 65%와 여자 76%가 주당(week) 필요한 물리적 활동을 하지 않음.
  - 물리적인 활동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건강 비용은 매년 약 80억 파운드(약 16조 원)에 달함.
  - 현대인은 앉아서 일을 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생활패턴을 바꿔 물리적 활동을 장려해야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나타남.

(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778660/Planners-urged-prioritise-walkers-cyclists)

## 19. 나무 향기 주택, 100년 건강 주택...‘골라 골라’ (도쿄)

- 도쿄都是 민간 사업자와 함께 ‘무사시노 i 타운 사계(四季)의 거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i 타운에 들어설 주택에 대해 기획·설계·시공·관리 등을 연구해 왔고, 주택 생산가와 분양가를 인하하는 실증 실험을 실시하고 있음.
  - i 타운에 들어설 주택은 나무 향기가 나는 주택, 목조 도미노 주택, 100년 건강 주택, 신세대 주택임.
    - 나무 향기가 나는 주택: 나무 소재로 짓고, 자연 채광과 바람이 집안 구석 구석에 이르도록 설계함.
    - 목조 도미노 주택: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고, 기후 풍토에 맞는 나무 소재를 활용한 공간을 조성하며, 방 배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 100년 건강 주택: 100년도 견딜 정도로 내구성이 높고, 지구의 건강을 위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건강을 테마로 함.

·신세대 주택: 생활의 즐거움을 폭넓게 해주는 아웃도어 리빙(Outdoor Living)에 초점을 둬. 정원에서 파티를 즐기고 정원을 가꾸며 사계절의 변화를 만끽할 수 있음.

- 都는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택 견학을 하도록 해, 주택 건설 실무에도 도움을 주고 있음.

·뉴타운에 입지할 주택의 공급가격을 낮추고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기대됨.

([www.toshiseibi.metro.tokyo.jp/topics/h19/topi053.htm](http://www.toshiseibi.metro.tokyo.jp/topics/h19/topi053.htm))

#### 한줄 뉴스

##### <브라질>

- 살바도르市, 식료품을 가져오면 카니발 입장권과 바꿔주는 이벤트 열고 식료품은 사회복지기관에 기부
- 상파울루市, 2008년 2월 11~17일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컴퓨터 경진대회 '캠퍼스 파티' 개최